

# 행복한 배화가족

함께 꿈꾸며 즐겁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 흔들리니까 신앙이다

내 가까운 곳에  
내 손이 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꽃피워주는 일에는  
흔들림이 있고 갈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잊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당신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  
손에 닿는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배화공동체 되길!

우리가 사용하는 교제공간을 더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  
은사를 드러낸 신성한 한호철, 조진영 집사가 있습니다.

## 예배안내

주일예배 : 주일오전 11시 캠펠홀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기도실

## 섬기는 사람들

목 사 김영석 김은철  
전 도 사 송민혜 (목회 및 심방)  
송민천 (예배 및 교육)  
간 사 박진성 (행정사역)  
백수산나 (유아사역)  
강영건 (찬양사역)

남선교회장 허경식 여선교회장 이은미  
선교사역팀 김재홍 양육사역팀 한호철  
재 무 김용석 새 가 족 함은혜  
교 회 학 교 김미소 조 신 이주혜

## · 지난주 통계

|    |  |
|----|--|
| 인원 | 76명  |
| 헌금 | <p>십 일 조   김영석 홍병진 박진성<br/>송민혜 이병홍<br/>감사헌금   김영석 홍병진 김재홍<br/>김선민 서광희<br/>주일헌금   강영건 권태성 김백준<br/>김선아 김영서 김우리 김은철<br/>김재홍 김선민 김백운 김백현<br/>노준영 박세연 박진수 한경숙<br/>서민욱 이아름 송민천 김미소<br/>윤서진 배성경 이동근 이은미<br/>정우석 조 신 조영남 정유민<br/>최명성 최영광 최정용 추세영<br/>태미선 허경식 함은혜 9569<br/>유아부 무 명<br/>목적헌금   성임숙(일천번제)</p> |

## · 대표기도

|       |     |
|-------|-----|
| 11.4  | 송윤경 |
| 11.11 | 유재연 |
| 11.18 | 이아름 |
| 11.25 | 이은미 |

# 배화교회

##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주보 제 2018-43호

# 2018.10.28

종교개혁주일/성령강림 후 제 23주  
주일오전 11시 캠펠홀

## 예배 Worship Service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회 중 :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불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다함께 :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 사도신경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  
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1. 온 땅은 주님의 성소
2. 당신은 영광의 왕 + 예배합니다

## 대표기도 송민혜 전도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 봉헌 및 찬양

\* 헌금위원 : 김영석, 한호철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으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시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창세기 11장 27-32절, 12장 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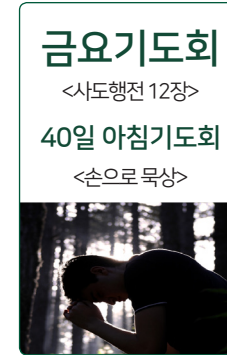
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 **전병식** 목사 **믿음의 계보 1, 믿음을 세우는 길**

파송찬양 및 **축도\*** <온 땅은 주님의 성소>

##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손으로묵상** <감사2>편을 완필하신 분들은 송민혜 전도사님에게 제출해주세요. 11월에 손으로 묵상할 말씀은 <소예언서>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예배** 오늘 속회 모임 후, 추수감사찬양예배(11월 25일)에서 부를 곡을 선정해주세요.

**환경미화** 조진영 집사님께서 교제 공간(식당)을 아름답게 바꾸어주셨습니다.

**생일파티** 10월 생일자는 김미소, 김하린, 민초원, 박초록, 오세희, 정유민 성도입니다.

**배식 및 정리** 오늘은 3속(일상속), 다음 주는 5속(문지마5속)입니다.

## 은혜나눔 TMG (too much grace)

성도들이 지난 속회모임에서 나누었던 '넘치는 은혜'를 소개합니다. <1속 - 한정식 속회 편>

**정우석:**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위해"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홍병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조르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셨다. 기도를 잘해야 한다.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호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에서, 백성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내 백성",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에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선택한다. 포지셔닝이 잘못되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다.

**서광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먼저 말씀이라는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야 하며, 말씀의 울림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